

[빈땅 여름휴가] 109년 된 포항 송라해변집 여행 (26.8.13-17)

재작년이었던가.

지음의 증조할아버지가 살았던, 그리고 지음이 어린 시절 방학이면 놀러갔던 포항집을 고쳐서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었다. 처음 방문했을 땐, 역사여행을 하는 느낌이었다.

'아니 이런 집을!!!'

<https://youtu.be/ySE1nRk14dA> (8'28")

기념할만한 부분만 남기고 다시 새로 짓자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건데, 그 공간이 주는 추억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가능한 재정과 여력 하에서 손을 보기 시작했다.

.... 수리기를 쓰면 너무 글이 장황해진다... (중략!!)

ㅋㅋㅋㅋ

26년 8월에는 포항에서 빈땅 여름휴가를 보내봅시다!!

하지만 뜻대로 되던가. 폭염에, 바쁜 일정(북토크 등)에 수리는 어정쩡하게 중단되어 있었고, [폐가 체험을 하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라는 모드로 일정은 하루하루 다가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인 것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날

작년에 함께 동해안을 훑어 내려오며 스노클링 포인트를 여행했던 양군과 약속시간을 잡았습니다.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조금 거리는 짧아지겠지만, 해변을 보며 내려가자며 서울에서 강릉을 찍고 동해안으로 내려가자고 가는 코스를 정했습니다.

평창쯤 지나서였을까 날도 흐리고 동해안에 파도가 높고 비가 온다는 몽애의 말도 있었는데 확실히 비도 좀 내리고 안개로 뿌영긴 하더라고요.

동해휴게소에서 잠시 쉬며 바다를 보았습니다.

비도 뿌리고 파도가 제법 컸습니다.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은 신나겠다 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몇 시쯤이더라.. 오후 6시반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역시 풀이 잔뜩 자라있었습니다. 때마침 지음 살구도 도착을 했습니다. 잔뜩 짐을 싣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뭐부터 했느냐. 지음은 예초기로 풀 베고, 저랑 양군 살구는 방들을 쓸고 닦고 구입해온 장판을 깔았습니다. 어허허.. 밤이 어둑해지도록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아, 우리 밥 먹어야지!! 내일 밝아지면 하자!!”

읍내 가서 일단 통닭으로 주린 배에 요기를 하고 아직 열린 읍내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집에 불을 밝히고 첫 밤을 두런두런 보냅니다.



“이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일 일어나서 좀만 더 하면 돼.”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마냥 즐겁습니다.

8월 13일의 밤이 저물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시민을.. ㅋㅋ 아닙니다.)

아!! 집이 비어있는 동안 제 집인양 드나든 고양이들이 시끌벅적 사람이 신기한지 와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둘째날

사실 뭘 했었는지 세세하게는 잊어서 기억이 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날 후기 시작할게요. 8월 14일 여기는 포항 송라면입니다.

잠자리가 편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안통했고 엄청 더웠습니다. 옆에서 자던 양군도 많이 잠을 설치고 피곤해했어요.



두 번째 날엔 무엇을 했냐. 문풍지를 발랐어요. 송송 뿜려있으면 날벌레들도 들어오고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없잖아요? 깔끔하게 떼어낸 뒤에 도배지 풀을 바르고 그 위에 재단한 창호지(?)를 붙였습니다.



그 뒤엔 마당 정리도 더 하고 선풍기도 조립을 했습니다. 사진엔 나오지 않았지만, 양군이 챙겨온 일인 스탠드 텐트에 수도호스도 연결하고 해서 임시 샤워시설도 만들고 설거지가 가능한 싱크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쉬자 놀자 하며 준비해서 마을 앞 바다에 들어갔죠.



그리고 배가 드나드는 항구 바위 쪽에서 스노클링도 했습니다.



영상은 요기!! 양군과 그리고 지음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_YLRAJWAOGY

<https://youtube.com/shorts/x3jeh6VSTc8>

몽애와 빈이 도착했다고 해서 포항에 올 때마다 늘 가던 그 식당, 영덕 횃집으로 향합니다. 물회 한 사발씩 똑딱!



그리고 또 밤이 찾아옵니다.

고양이들이 다섯 마리나 왔어요. 이것저것 구입해온 것들로 안주를 준비하고 술상을 차립니다.





이야기는 무르익고 밤은 깊어갑니다.



오늘 밤은 꼭 잠들 수 있을까요? ... 뒤척뒤척..

셋째날



그리고 보니, 둘째날 후기 중에 빠뜨린게 있었네요.

하나는 냉장고를 샀다는겁니다. 우와!!! 냉장고라니!!

전기도 끌어다 썼는데 ㅋㅋ 그래도 냉장고 덕에 휴가기간동안 시원한 맥주도 마실 수 있었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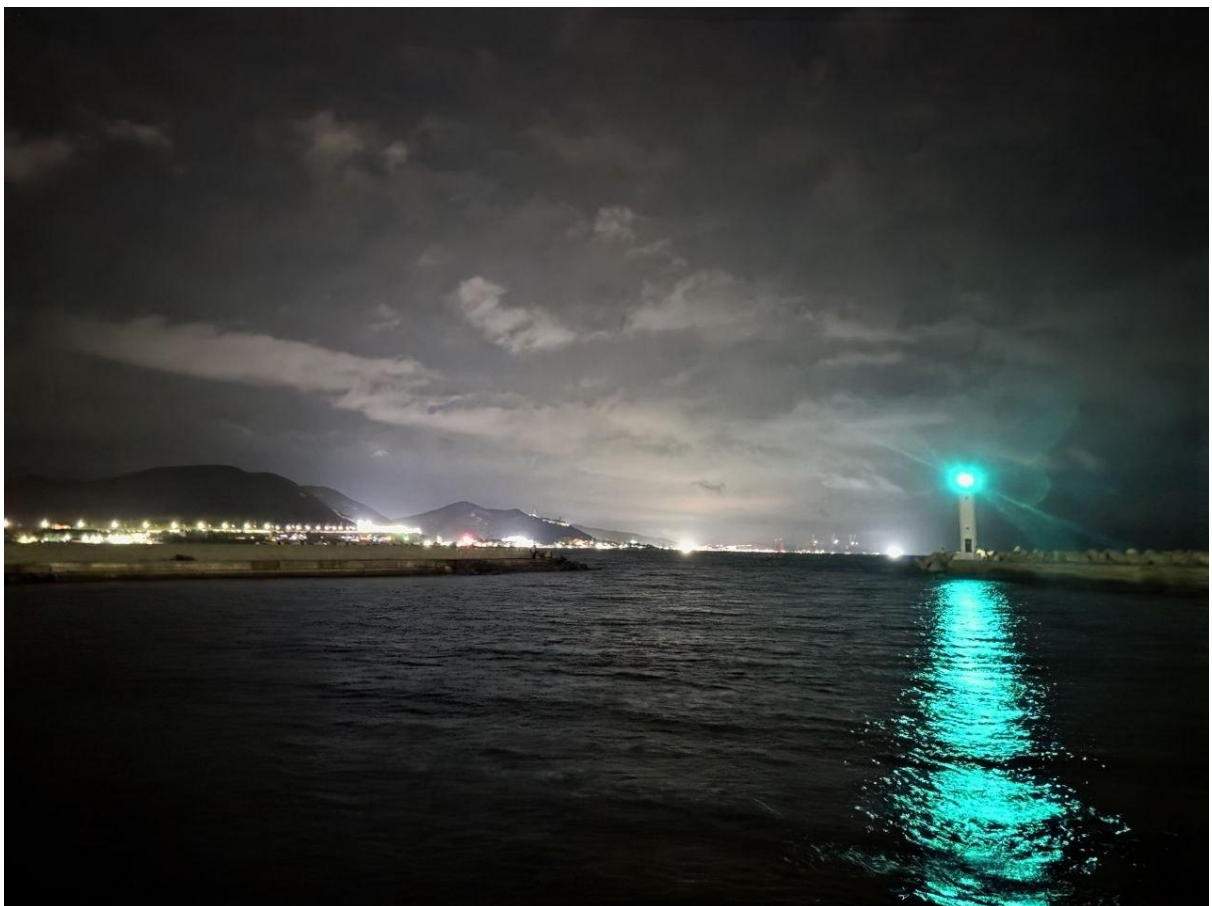
파스 in 포항 바닷가 영상

<https://youtu.be/iZS9E-kMkOw>

그리고, 제가 인물 중심 사진을 안찍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했는데, 파스가 둘째날 저녁에 왔죠?

부모님집에 들어서 (홍성팀이 챙겨야 할 짐이 워낙 많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은) 김치까지 챙겨서..

감사히 잘 먹었어요. 김치 부침개도 해먹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해먹었던가요? 저는 왜 김치찌개를 못 먹은 것 같죠?? ㅎㅎㅎㅎ



©양군

자 셋째 날 시작합니다.

셋째 날이 휴가의 메인입니다. 내연산도 오르고 계곡도 가고 정해진 일정들이 있는 날이에요. 도울과 반달도 오는 날입니다.(반달은 휴가 한 달 전부터 표를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낮엔 성주에서 짬돌도 옵니다.

어제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은 몽애와 빈은 영덕의 스노클링 포인트에 가서 물살이들을 만나고 양군은 늦잠을 자고.. (잠자리가 참 어려웠어요. 피곤함이 누적될 수 밖에 없었던 양군..)

몽애네와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바닷가 앞이니까
마을 앞 바닷가에 물놀이를 한 번 더 다녀옵니다.



점심에는 내연산 앞 식당가에 가서 먹기로 하고. 도울은 픽업을 하고 반달은 식당으로 직접 오기로 합니다.



등이 굽은 연세 많아보이는 할머니가 직접 국수를 밀어서 만들고 있는데 국수 장인 같아 보이더라고요.

<https://youtube.com/shorts/p5UKI8cziwE>

밀대로 칼국수면 뽑는 할머니 영상

자 이제 본격적 등산 시작!!

목적지는 제7폭포까지입니다.

저희끼리만의 비밀(?)인데요. 짱돌이랑 살구는 등산에서 빠졌답니다. 대신 차를 몇 십 잔이나 마시는 다도극락(?)에 있었다네요. ㅋㅋㅋ







<https://youtube.com/shorts/czn29pZhbVA>

도울의 재미난 영상이네요. ㅋㅋㅋ



등산을 마쳤으니, 또 먹으러 가야죠. 이번에는 짱돌이 소개하는 영덕 회 맛집입니다. 짱돌이 지역상품권이 있다며 밥값을 다 결제했어요.

네오와 짱궁도 왔어요. 네오는 포항집 풀을 벤 곳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 생활도 낭만이 있네요. 상큼함이 풍겨나는 커플이었습시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어디로 간다?? 카페!!
시골을 가도 도시의 생활대로.. ㅋㅋㅋ



그리고 또 뭐한다?? 술자리 ㅋㅋㅋㅋㅋㅋㅋㅋ



운치 있게(?) 비도 내려주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이었습니다.

굿 나잇!

넷째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려와서 스노클링을 많이 못했네요. 바닷가 정자에서 자고 온 짱돌이 좋은 곳이 있다며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양군과 따라 나섰습니다. 영덕에 두 군데 정도 포인트를 보다가 어떤 박물관 옆의 바닷가로 내려가서 물에 잠시 들어갑니다.



©짱돌

짱돌이 찍은 양군과 우마(사진)

<https://youtube.com/shorts/kDUs8HuxN38>

양군 입수하는 쇼츠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는지 축구단 버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덕에 축구장이 많다고 합니다.



©살구

포항집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앞바다에 가서 즐거운 오전 한 때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반달



밥도 챙겨먹어야죠. ㅎㅎㅎ 먹어야 힘내서 놀죠!

내일도 대체휴일이지만 돌아가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들이 있지요. 포항 시골집에서 가까운 월포역에서 먼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데려다주러 가는 김에 커피 한 잔.



©지음

몇 명의 친구들을 역에 바래다주고 와보니 지음이 해루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도 내리는데..
성계랑 고동.. 불가사리는 덩으로
짱돌이 손질에 수고해줬습니다.









김치전도 부치고 오뎅탕도 끓였습니다.

손질 다한 고동과 성게도 맛있었습니다.

앞집에 김치전을 가져다 드리니 복숭아도 주셨어요.



밤은 깊어가고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제가 그날 말이 많았어요.. ㅎㅎㅎ;;





고양이들도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마지막날

따로 글 쓸거 없이 바로 이어서!!

마지막 날은 밝아옵니다.

정리해야죠. 마지막 멤버들이 집안을 단도리하고 짐을 꾸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엄마랑 떨어지지 않을래요. 나중에 또 놀러와요.
고양이와도 작별인사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들러야죠. ㅋㅋㅋㅋ

뷰가 좋은 카페를 들립니다.



아 6시간 운전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도 가야죠.

모두들 또 만나요!!!



쏟아지는 빗방울과 피곤함을 이겨내고 도착!!

고기!! 뒷풀이?? ㅎㅎ

고생했다 친구들아.